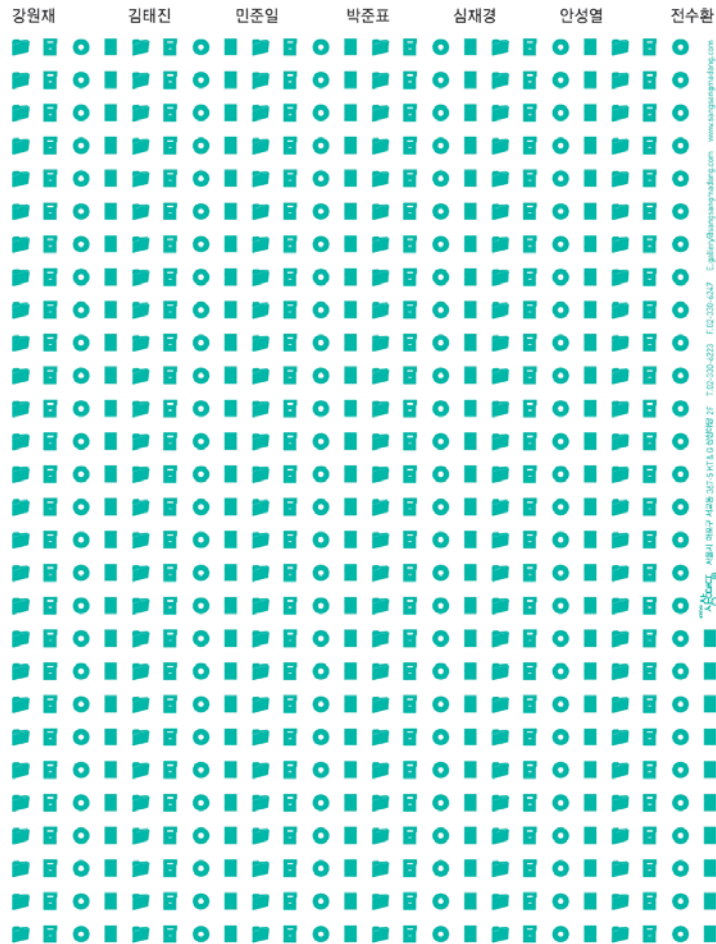


- 제 목: <젊음에 관한 한 연구> 보도자료
- 일 자: 2009년 6월 18일
- 문 의: 갤러리상상마당 Tel. 02-330-6223/4 Fax. 02-330-6247



젊음에 관한 한 연구
 2009/7/25 Sat - 8/23 Sun

오픈닝 2009. 7. 25 토 오후 4시
 장소 KT&G 상상마당 2F
 주최 KT&G 상상마당
 주관 갤러리상상마당

1. 전시개요

| | |
|-------|--|
| 전 시 명 | 젊음에 관한 한 연구 |
| 일 시 | 2009년 7월 25일[토] - 2009년 8월 23일[일] |
| 오픈닝 | 2009년 7월 25일[토] 4pm '젊음'에 관한 '토크-워크-숍' |
| 장 소 | KT&G 상상마당 2F 갤러리 |



| | |
|-------|--|
| 참 여 자 | 강원재, 김태진, 민준일, 박준표, 심재경, 안성열, 전수환 |
| 전시소개 | ‘젊음’을 둘러싼 의식, 관념, 이데올로기에 대해 미술가, 경제학자, 출판인, 대안문화교육 기획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젝트 전시이다. 총 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젊음에 관한 한 연구>는 회화, 영상, 설치 작업들의 전시와 관객과 함께 ‘젊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레이닝 해보는 일련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전시구성 | 1) 전 시: 7명의 참여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공동으로 준비한 회화, 영상, 설치 작업들의 전시 2) 워크숍: 관객들과 함께 젊음을 탐구하고 트레이닝 해보는 워크숍(3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 주 최 | KT&G 상상마당 |
| 주 관 | 갤러리상상마당 |

2. 전시소개

‘젊음에 관한 한 연구’는 ‘젊은 이에 관한 연구’는 아니다. 또 ‘젊음에 관한 한 연구’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아카데미한 연구도 아니다. ‘젊음에 관한 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평균적인 현실의 일상적인 언어와 관념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약간의 낯선 아이디어와 감각으로 이루어진 시각이미지와 문자텍스트들로 구성된 전시다.

이 기획은 젊은 미술가, 젊은 경제학자, 젊은 출판인, 젊은 언론인이 함께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젊음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이미지로 표상하는 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 드러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이야기일 수도 또 어떤 예기치 않은 이미지일 수도 있다.

‘젊음에 관한 한 연구’는 박상룡의 소설 ‘죽음에 관한 한 연구’의 제목을 빌려왔다. 이 짧은 풀 속에서 우리는 젊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 젊음은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가는 길의 어느 지점에 불과한가? 젊음은 꿈과 희망과 건강과 미래와 인접해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젊음 또 얼마나 허황되고 허무하고 허약한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나 도스도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나 다락방이나 옥탑방의 젊은 시인이나 철학자들, 모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향한 강한 열정 속에 있기도 하다. 젊음의

양가성(ambivalence), 이 이중의 뉘앙스를 지나면, 젊음의 담론은 젊음과는 무관한 소리들, 소란들, 관념들의 잔치가 된다. 이러한 젊음을 둘러싼 관행적인 담론들 중에서 젊음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마치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그리하여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무슨 의약품 광고처럼 들린다. 허구적인 젊음의 이미지, 유사젊음(pseudo-youth)들로 가득한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다.

20세기를 지나며 살아남은 가장 생명력이 짙긴 또 가장 성공적인 이데올로기는 젊음-이데올로기이다. 젊음-이데올로기만큼 성공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는 아마도 청결-이데올로기가 아닐까. 이들 이데올로기들은 일종의 가족유사성을 보여주며 청결한 젊음, 건전한 젊음의 모습으로 동반하곤 한다.

밀레니엄을 전후로 한국사회는 특히 미술계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중무장한 재기발랄의 젊음을 모색하였다. 이 젊음에 대한 열렬한 구혼은 청년예술가 또는 신예예술가들의 발굴과 지원과 그들의 놀라운 예술적 성공이 곧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이 올려놓을 것이라 상상하였다. 그리고 젊음과 예술의 만남이란 이 놀랍도록 성공적인 기획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었다. 미술계 또한 국공립미술관들은 물론 많은 기업 미술관들이 또 개인 갤러리들이 젊음 미술가들을 찾는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 젊음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21세기 황금광 시대의 아이디어는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젊음은 또 젊은 예술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늙은 예술이 있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럼 늙은 예술은 또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젊은 예술에 대한 물음은 생물학적 젊음이라는 관념과 이웃한 관념들이 나열되기 마련이다. 이 유사논리와 유사개념이 우리 시대의 젊음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조력자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후기 자본주의시대의 첨단 산업은 전자정보산업 만이 아니라 바로 '젊음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다른 사회보다도 더욱 드라마틱한 시기를 지나온 한국의 롤로코스터식 삶을 젊음에 관한 한 연구라는 프리즘에 관통시켜 보려한다. 이내 어떤 빛과 색과 이미지와 사건들이 막 펼쳐질 거라 기대하면서, 기획에 참가하는 이들의 고유한 경험과 사색과 발상이 사건의 종료(죽음)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젊음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다. 김노암 / 상상마당 전시감독

3. 참여자 프로필

강원재 / 하자센터 기획팀장 홍익대 예술학과를 나왔고 98 자유콘서트 홍보담당자로 활약한 경력이 있다. 현재 청소년 학습 공간, 하자센터의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태진 / 국민대 미술학부 교수 미디어아트 작가, 한국영상학회 회원이자 현재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New Form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준일 / 미디어아트 작가 영상, 애니메이션 작가로,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영상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박준표 / 경험 디자이너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 연구원으로 웹 서비스를 기획했다. 현재는 청(소)년, 다양성, 뉴미디어를 키워드로 PINY라는 Social Venture를 실험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10대 시절부터 시민문화, 캠프, 포럼, 텍틱컬 미디어, 웹서비스 등 다양한 기획과 연출, 실험을 해왔고 청소년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동 중이다.

심재경 / 미디어아트 작가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 후, 독일 '칼스루에'에서 미디어아트 공부를 했다. 현재 <안국동 레지던시 가옥>에서 교육활동 아카이브 출간물을 집필하고 있다. 돛플레이, 미디어아트 협업 그룹 INP, 스톤앤워터, AEC 비빔핌 등 다양한 작업자 그룹과 함께 활동했다. 전시기획, 코디네이터, 공공미술,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활동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안성열 / 출판사 플래닛 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아도르노의 예술의 자율성 개념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월간 《미술세계》기자,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출판사 <열린책들>의 인문 담당 편집자로 일했고, 현재 출판사 플래닛 대표로 있다.

전수환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멀티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한 경영 컨설팅 연구, 예술과 문화의 감수성과 경영기획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 워크숍 안내

2009.08.01. Sat - 14:00

내 청춘의 서클 김남이

지구가 거꾸로 뒤집어진 것 마냥 온 세상의 무게가 나에게로 떨어지는 듯하다.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이렇게 질문한다. '나만 이렇게 힘든걸까?' 본 워크숍에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동시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성장통을 앓고 있는 이들의 증상을 실질적인 물체를 통하여 진단하고, 개인의 증상에 맞는 주관적인 치료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워크숍은 두 가지의 '진단' 세션으로 나누어진다. 그룹이 참여하는 각각의 세션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통의 원인을 공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성장통이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깨달으며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2009.08.15. Sat - 14:00

놀이 연구 워크숍 심재경

놀이를 구상할 때 함께 생각해야 할 것들- 놀이의 구조와 규칙, 즐거움, 아무 대가나 보상이 없는 근본적 무상성, 우연성 등. 놀이 연구 워크숍은 자의적이지만 관념적이거나 허구적인 성격을 가진 '놀이 구상'을 통하여 규칙과 자유, 혹은 양자 사이의 관계 유지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취향과 의지 등을 조율하여 표현해 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가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2009.08.22. Sat - 14:00

불만에 관한 새로운 상상 박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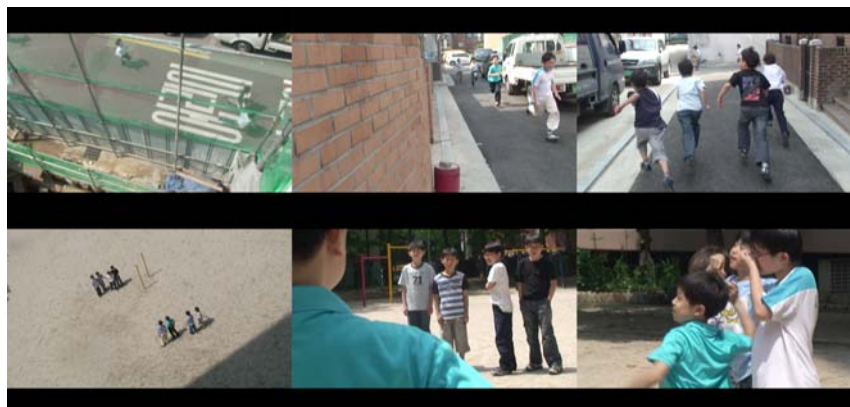
젊음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지던 '저항'. 저항이 사라진 요즘, 일상의 아주 작은 불만을 찾는 작업을 통해 저항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불만을 감지해내는 일, 불만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젊음'과 '저항'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불평'을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불만은 '완전함'에 대한 자각, 이상향에 대한 방향이 있을 때만 잉태되므로 불만을 갖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다. 불만 워크숍은 살아있음, 즉 생동감으로서의 불만을 통해 '젊음'을 재해석해 보는 시간이다.

※ 워크숍은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5. 전시 이미지



민준일_Waiting for Godot_애니메이션_1:00_2009



김태진_Kids on the Edge_싱글채널 비디오_07:55_2009



김태진, 안성열_소비문화, 이제는 알고 싶다-청춘편_싱글채널 비디오_2009

※ 위의 사진들은 웹하드에서 높은 해상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 웹하드 |
| www.webhard.co.kr ID: ksangsang PW: 9560 Guest > 내리기 전용 > 젊음에 관한 한 연구 |
| 문의 |
| 변수정 T. 02-330-6224 F. 02-330-6247 E. romi@ssmadang.co.kr |